

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

2021년 감사직에 입후보한 황선영 인사드립니다.

우리 협회는 올해로 43주년을 맞이하며 수많은 역사들을 남기고 있습니다. 지난해에는 스포츠 단체 최초로 스포츠 산업대상에서 ‘대통령 표창’ 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.

이러한 업적은 우리 KLPGA가 대한민국 골프발전에 많은 힘쓰고 협회의 투명함과 신뢰를 인정받았기에 받은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KLPGA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선수들을 보호하였습니다. 이는 김상열 회장님을 주축으로 임원 및 사무국의 많은 노력과 2,693명의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만들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. 저는 그동안 회원님들께서 위임하여 주신 감사의 자리에서 협회의 업무개선을 위한 업무감사,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 그리고 임직원들의 전반적인 직무감사 등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. 특히 회계의 투명성은 인진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회원님들을 위한 예산이 잘못 집행되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분기감사 이외 매달 감사를 실시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 감사 업무를 하며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회원님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해주신다면 부끄럽지 않은 감사로써 다시 한번 협회에 일하고자 합니다. 더욱 더 신뢰와 믿음을 주는 감사가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1년 2 월 19 일

성명 : 황선영



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